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 2025. 9. 29.(월) 18:30

각국 한인회장들, 새정부 '평화공존' '공동성장' 비전 토의

- 재외동포청 주최 '2025 세계한인회장대회' 29일 개막·67개국 370여명 참가
- 4일간 공동의제토론·정부와의 대화·재외동포청 바로 알기 등 프로그램 소화
- 김경협 청장 “재외동포, 한반도 평화와 번영 잇는 가교 역할해야”

- 전 세계 한인회장들이 국민주권 정부가 추구하는 ‘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연다’ 는 비전에 대해 논의하는 ‘2025 세계한인회장대회’ 가 9월 29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서울 그랜드 워커히 호텔에서 막을 올렸다.
-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67개국 한인 회장과 대륙별 한인회총연합회 임원 등 370여 명이 참가했다.
- 이번 대회는 ‘700만 재외동포와 함께 세계를 잇다, 미래를 밝히다’ 라는 슬로건 아래 10월 2일까지 나흘간 열린다.
- 이날 오후 열린 개회식에는 김경협 청장을 비롯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,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,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, 박성훈·박준태 의원 등 70여 명의 국내 주요인사도 자리를 함께했다.
- 김 청장은 개회사에서 “국민주권 정부가 추구하는 비전은 재외동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길” 이라며 “재외동포사

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어가는 가교 역할을 해야한다” 고 말했다.

○ 또 “대한민국이 글로벌 통상국가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가 기반이 돼야 하며 동포사회와 함께 국제적 지지를 넓혀 갈 때 모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다” 고 강조했다.

○ 이어 올해 대회에서는 ‘공통의제토론’ 과 ‘지자체-동포사회 협업사례 발표’ 를 새롭게 마련했다고 소개하면서 “이번 대회는 동포사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모국과 실질적 협력과 연대를 이어가는 자리” 라고 밝혔다.

□ 한인회장들은 대회 이틀째인 30일 오전 신규 프로그램인 ‘공통의제토론’ 에서 전 세계 한인의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. 법무부, 국세청,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국민연금공단, 국립민속박물관이 참여하는 ‘정부와의 대화’ 에서는 각 기관의 동포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을 청취하고,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.

○ 같은 날 진행되는 ‘지자체-동포사회 협업사례 발표’ 에서는 인천광역시, 울산광역시,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공유하며, 모국과 동포사회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.

□ 대회 3일차인 10월 1일에는 △지역별 현안토론 △재외동포청 바로알기 △전체회의 △ 폐회식이 이어진다.

□ 대회 마지막 날인 10월 2일 오전에는 같은 장소에서 ‘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’ 이 열린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총괄과	책임자	과 장	오현영	032-585-3195
		담당자	사무관	유가은	032-585-3197

대한민국
지^지책브리핑

